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의 지역연계성과 존립기반*

- 경남지역을 사례로 -

이종호** · 채민수***

The Localness and Socio-Economic Foundation of Local Social Enterprises : The Case of Gyeongnam Province in South Korea

Lee, Jong-Ho** · Chae, Min-Soo***

요약 :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주요어 :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발전

Abstract : Social enterprise is defined as a sort of companies that pursue both publicity and profitability. It is usual that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viability are dependent upon localized resources in terms of a labor market, raw material procurement and sales marke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vi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local resources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 economy policy. The social economic policy in Korea is generally treated as means of local developmen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ocalness and socio-economic foundation of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located in the west of Gyeongnam province in Korea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local resource-based social enterprises. The selection of the case study firms was chosen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viability of the firm, location of a company and the types of organization.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most of local social enterprises had a viability and profitability to effectively utilize local resources. But it is claim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local social enterprises reveals some limitations to promoting effectively local social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qualification of applying to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Seco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hanged from hardware-centered programs to software-centered programs such as training and educ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business consulting. Fi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policy to focus on follow-up programs for firms which are no more capable of receiving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these firms, the government policy needs to focus on facilitating activities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social enterprise.

Key Words :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community business, regional development

1. 서론

한국에서의 국가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은 대규모의 자본을 기반으로 신속한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 이 연구는 2013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연구교수 과제임.

**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산학협력정책연구소 소장(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 Director,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jhl@gnu.ac.kr)

*** 경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cms8646@naver.com)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으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양극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재정 의존성 심화, 지역 내 고용불확실성 등의 지역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새로운 지역개발의 전략으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원호, 2014; 장원봉, 2015; 이상면, 2015).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며,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이윤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사회나 기업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DTI, 2002).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적 영역인 제3섹터(the third sector)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간주하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사회의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지역사회에 특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Amin, 2009).

한국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이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영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영리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득을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시장 친화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형태가 아닌 지역개발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시장 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의 정책 전환은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이종호, 2013). 이에 사회적기업의 수행단위를 전국적 단위가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고, 지역 내 사

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존립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의 하나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지역자립형공동사업을 2011년에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사업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최종목표를 '자립성을 가진 마을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마을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적 측면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마을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마을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는 마을기업의 최종 형태이다. 마을기업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장의 기업들과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을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기존에 지역에 존재하던 자원을 지역브랜드의 하나로써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Buckingham *et al.*, 2010).

2016년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1,342개에 달한다. 이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기업은 216개(1년차 신규 지원대상 119개, 2년차 재지정 지원대상 102개)이다. 1,342개 기업 중 82%에 해당하는 1,112개 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되거나, 2차년도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여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2010년 이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년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마을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운영 안정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역연계성 분석을 통해 자생적 존립기반 실태를 제시하고,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존립기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연계성과 마을기업의 존립기반 분석을 위한 틀로서 마을기업의 수익성, 지역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하였다. 수익성은 마을기업이 자생적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 정도를 의미하며, 지역성은 마을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의 지역자원 의존도, 지역주민의 참여정도, 지역공동체를 위한 재투자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공익성은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이익의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를 위해 서부경남의 농촌지역에 위치한 마을기업 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기업들은 2010~2013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2개년에 걸쳐 재정지원을 받고, 현재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다. 연구대상 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마을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연구대상 마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및 마을의 주민과의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마을기업 정책 동향 및 현황

1) 정책 동향 검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가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지역자립형공동체사업이란 명칭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을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6년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진행결과, 2015년 12월 기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은 전국에 1,342개, 마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11,513명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위원회, 2016).

마을기업의 정의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행정자치부는 해체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전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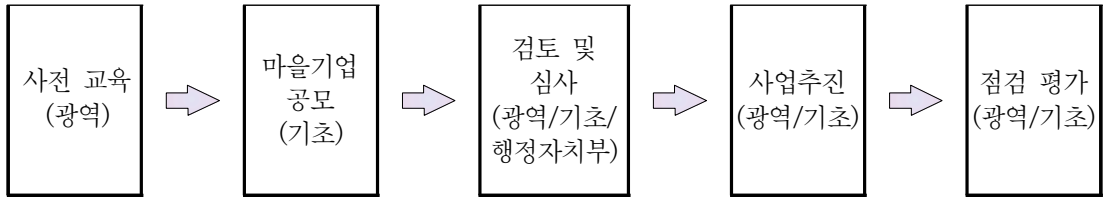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지역경쟁력 및 지역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마을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의 형태로 기업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구성원 5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의 기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마을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부는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신규 마을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법인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회계·홍보·노무·법무 등의 경영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위탁하여 선발을 실시하며, 각 광역지자체는 사회적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유사정책들의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원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을기업 선정과정은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그림 1). 마을기업의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며, 행정자치부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발과정의 경우 사전 교육, 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검토 및 심사, 사업추진, 점검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사결정의 거버넌스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종적 선발권한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광역지자체의 중간지원기관은 마을기업 법인 설립 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마을기업 공모가 이루어



자료 : 행정자치부(2016)

그림 1. 마을기업 선정 프로세스

어지는 매년 2월 이전에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하여야 한다. 사전교육프로그램은 매년 1~2월에 개설되는 교육으로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입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는 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는 1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마을공동체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화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는 1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마을기업 설립에 관한 실제적 사업추진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기업의 공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지정자격을 가진 마을기업을 선별·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한다. 마을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회원명단,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교육확인서 등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다.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시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기업의 선정여부를 심사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지정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지원금을,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은 당해 3월말~12월말까지 신청한 사업을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사업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고한다.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은 사업수행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증빙을 위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최종평

가를 실시하며,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시에는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 혹은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부는 효과적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 법인의 설립 전 사전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중간지원기관과 신규마을기업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고, 마을기업을 경영하려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의 공모 및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거버넌스가 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마을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광역지자체 별로 사전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전교육프로그램의 개괄적 교육내용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의 내용과 교재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지원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간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마을기업 지원 조건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현행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마을기업 지원은 총24시간의 사전교육을 수료하기만 하면 어떠한 법인이라도 지원 가능하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사업¹⁾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사업²⁾에 비해서 신청자격이 쉽다. 사회적기업 사업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2년간 활동을 하여야 사회적기업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촌공동체 사업의 경우 1년 이상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검증이 안 된 신생기업에 곧바로 사업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의 중

도 이탈이나 사업포기, 혹은 예산 낭비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2) 경남의 마을기업 현황

경상남도는 행정자치부가 2010년 지역자립형공동체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왔다. 2015년 12월 기준 경남의 마을기업은 전체 101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을기업 지정 개수는 2010년 18개, 2011년 15개, 2012년 13개, 2013년 30개, 2014년 13개, 2015년 12개이다. 지역별 마을기업의 수는 창원시 7개, 진주시 6개, 통영시 5개, 사천시 2개, 김해시 3개, 밀양시 6개, 거제시 6개, 양산시 5개, 의령군 4개, 함안군 5개, 창녕군 8개, 고성군 6개, 남해군 6개, 하동군 7개, 산청군 4개, 함양군 6개, 거창군 7개, 합천군 8개가 존재한다.

경상남도의 경우 국비 5억 7,200만원, 도비 2억 5,700만원, 시·군비 3억 1,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총 11억 4,400만원을 2016년 마을기업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이 중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2억 4,400만원이며, 마을기업 지원예산이 9억 원이다. 경남의 마을기업의 분류³⁾를 지역자원 기반형, 문화콘텐츠 기반형, 사회서비스 기반형, 복합형으로 나누었을 때, 경남의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기반형에 집중되어 있다. 경남 내 101개 마을기업 중 84.2%에 해당하는 85개 마을기업이 지역자원 기반형 마을기업이다. 지역자원 기반형 마을기업은 특히, 영농조합법인⁴⁾의 형태로 식품가공과 특산물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체험형 지역자원 기반형 마을기업이 많았다. 문화기반형 마을

표 1. 경남지역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지역자원 기반형	문화콘텐츠 기반형	사회서비스 기반형	복합형	계
창원시	5 (71.4)	1 (14.3)	0 (0.0)	1 (14.3)	7 (100.0)
진주시	5 (83.3)	0 (0.0)	0 (0.0)	1 (16.7)	6 (100.0)
통영시	3 (60.0)	0 (0.0)	0 (0.0)	2 (40.0)	5 (100.0)
사천시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김해시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밀양시	6 (100.0)	0 (0.0)	0 (0.0)	0 (0.0)	6 (100.0)
거제시	6 (100.0)	0 (0.0)	0 (0.0)	0 (0.0)	6 (100.0)
양산시	5 (100.0)	0 (0.0)	0 (0.0)	0 (0.0)	5 (100.0)
의령군	4 (100.0)	0 (0.0)	0 (0.0)	0 (0.0)	4 (100.0)
함안군	4 (80.0)	1 (20.0)	0 (0.0)	0 (0.0)	5 (100.0)
창녕군	5 (62.5)	3 (37.5)	0 (0.0)	0 (0.0)	8 (100.0)
고성군	4 (66.7)	2 (33.3)	0 (0.0)	0 (0.0)	6 (100.0)
남해군	4 (66.7)	1 (16.7)	0 (0.0)	1 (16.7)	6 (100.0)
하동군	4 (57.1)	0 (0.0)	2 (28.6)	1 (14.3)	7 (100.0)
산청군	4 (100.0)	0 (0.0)	0 (0.0)	0 (0.0)	4 (100.0)
함양군	6 (100.0)	0 (0.0)	0 (0.0)	0 (0.0)	6 (100.0)
거창군	7 (100.0)	0 (0.0)	0 (0.0)	0 (0.0)	7 (100.0)
합천군	8 (100.0)	0 (0.0)	0 (0.0)	0 (0.0)	8 (100.0)
계	85 (84.2)	8 (7.9)	2 (2.0)	6 (5.9)	101 (100.0)

자료 : 경상남도(2016)

기업의 경우 8개, 사회서비스 기반형은 2개, 복합형은 6개로 나타났다.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은 현재 사단법인 경남 도농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남 도농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는 2015년 12월 경상남도의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1월~2월에 걸쳐 마을기업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경남 도농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에서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하는 대상을 위해 컨설팅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재정기업이 끝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으나, 지원이 끝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2016.05.17).

3. 심층사례연구

1) 산청군 민들레공동체

민들레공동체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마을에 위치한 마을기업이다. 민들레 공동체는 지역 선교회의 한 형태로 1988년 진주시 화동마을에서 설립되었으며, 1995년 현재 위치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마을로 이주하였다. 민들레 공동체는 민들레 베이커리라는 사업 명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의 지원비를 지급받았으며, 주요 사업은 우리밀을 이용한 베이커리 운영 및 제과제빵 교육 운영이다.

민들레 베이커리 사업은 순수하게 민들레 공동체 내부의 아이디어로 착안 된 것이 아니라 창원문성대학의 호텔제과제빵학과의 정용면 교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창원전문대학과 산학협력협약(2010.07.21)을 맺고, 당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선정(2010.09.14)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사업 초기인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는 정용면 교수와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양우연 케익하우스, 그리고 황용만 제과제빵기능장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

로 영업을 시작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해당 지원 사업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마을기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사업대상단체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민들레 베이커리의 사업목적은 지역 내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의 지원이다. 민들레 베이커리를 통하여 지역민이나 귀농자를 상근직과 비상근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우리 밀·쌀·산청 한약재 등을 빵의 재료로 사용하여 ‘로컬푸드(local food)’의 생산과 소비 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약자나 소외계층의 지원, 그리고 농촌노인 영양불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공공성의 증진이 목적이다.

민들레베이커리의 주된 사업은 우리밀과 쌀에 약초를 혼합한 친환경 제과, 제빵 및 판매 그리고 제과, 제빵 체험교육 및 실습실운영이다. 민들레 베이커리는 따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꾸르미’라고 하여 빵을 꾸르미로 주문생산 및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하였다. 제빵실습 교육의 경우, 민들레 베이커리가 위치하고 있는 갈전마을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제빵실습을 실시하였다.

정부지원금은 베이커리와 카페건물의 건설비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엔 포장 재료비로 사용되었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비용은 민들레 공동체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판매수익으로 충당되어 운영하였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빵꾸르미 판매 수익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달했다.

민들레 베이커리는 산청군에서 가장 먼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된 상태이다. 2015년 민들레 베이커리를 담당하던 제빵사가 그만둔 후, 베이커리를 운영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수익성도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대부분을 마을주민의 제빵교육, 직업교육 등 인력양성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건물과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 적인 부분에 투자한 것이 전문인력의 공백에 따른 사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과 연계되지

않은 점과 마을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도 마을기업운영의 실패 원인의 하나이다. 현재 민들레 베이커리의 시설은 민들레학교의 제빵 실습과 민들레 공동체 직원들과 민들레 학교 학생들의 간식공급처로만 이용되고 있다. 매년 정부에 보고하는 마을기업의 수익은 민들레학교 학생들의 간식비 수입에 국한될 뿐 실제적 수익은 전무하다.

2) 하동군 한구자리 채울

하동군 하동읍에 위치한 식당인 한구자리 채울은 결혼, 이민 등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도우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채워가자는 의미를 가진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립 지역공동체이자 마을기업으로 2010년 8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채울은 2010년 8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 당시 ‘하동군 여성지도자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오귀남 대표가 주축이 되어 총무와 5명의 이주여성을 포함한 7명으로 출발하였다. 법인 설립 후 약 6개월 간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하동공설시장 내에 사업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오귀남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체였으나 하동군 여성지도자회에서 먼저 사업 인수를 제안하면서 2012년 5월 사업을 인수인계하고 여성지도자회의 회장이 채울의 대표를 겸하게 되었다.

한구자리 채울은 하동군의 참맛 알림이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 특산물인 취나물, 고사리, 토란줄기 등을 활용한 밑반찬 등 각종 먹을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뿐만 아니라 영세농가 판로개척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지도자회의 활동을 흡수하여 한국어 숙련 및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설립 목적이다.

법인설립 당시 베트남, 일본 등의 다문화 이주 여성이 포함된 4명이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여성지도자회에서 당번을 정하여 일을 돕도록 했고, 상황에 따라 군내 다문화 여성이나 여성지도자회

부터 보조 인력 지원 받을 수 있어 업체 내부의 인적 구성은 매우 유동적이었다.

한구자리 채울은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반찬과 맞춤형 도시락, 전통차 등을 판매했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다문화 요리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장날이나 축제에서는 가판대에서 다문화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다. 마을 기업으로서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식자재는 하동군 내에서 공급받아 향토 특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농약 또는 친환경 농법으로 자활근로 아로영농사업단이 키운 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요리를 할 때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3가지 원칙인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기’,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짜고, 달게 하지 않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채울은 하동군 내 지역주민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고객의 영양을 고려해서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하는 등 건강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고 기존의 수익만으로는 마을기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하동공설운동장에서 2014년 하동읍내의 대로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한구자리 채울은 시장 밖 대로변에 위치하여 1명의 다문화 이주 여성을 포함한 3명이 돌아가며 근무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메뉴 역시 백반 정식과 비빔밥, 김밥으로 간소화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다문화여성의 한국문화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중단하였다.

한편 현재 대로변으로 사업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사업체의 소속도 경남 여성지도자회에서 하동 자활센터⁵⁾로 바뀌었다. 2013년 자활근로 영농사업단 구성원의 일부가 하동군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마을기업과 취지가 일치하여 한구자리 채울의 지향을 이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상호와 기자재, 그리고 ‘마을기업’의 이름까지 그대로 인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취지를 유지하여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에 기부하는 등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한구자리 채울'은 하동의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립 지역공동체이자 마을기업으로 2010년 8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공설시장 내에서 대로변으로 위치를 이동하였다. 또한, 가게의 메뉴나 고용하는 다문화여성의 종업원 또한 줄어들게 되었고, 기존에 실시하던 다문화 여성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게 되어 당초의 사업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마을기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악화에 따라 다문화 이주 여성의 고용도 줄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이나 기타 체험활동도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남해군 두모마을기업 해양레저

두모마을기업 해양레저(이하 두모마을기업)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에 위치한 마을기업으로, 카약체험 및 조개 캐기 체험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본래 두모마을은 2005년 농림부에서 추진하였던 녹색농촌체험마을⁶⁾ 조성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비슷한 환경을 가진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미국과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카약(kayak)에 관한 정보를 접했던 마을주민이 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두모마을기업의 사업 목적은 두모마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기존에 조성된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포츠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추구하였다.

현재는 해양레저 장비뿐만 아니라 트레킹을 위한 산악자전거(12대)를 구비하여, 해양레저 활동과 트레킹, 그리고 개 메기, 조개 캐기, 어부의 하루 등 어촌 체험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또한 두모마을 내에 위치한 송림 숲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구마을회관을 펜션으로 개조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모마을기업은 상근직 근로자 3명, 비상근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 2억 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올린 수익은 향토장학금의 형태로 기부하거나 마을공동체로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단위의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또한, 장애인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의 이윤은 개별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합의과정을 거쳐 공동체 차원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이용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 해양레저는 2005년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시작해 2010년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였다.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 내 캠핑장과 펜션·민박을 통한 숙박사업과 체험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마을기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마을주민들이 오랫동안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기존의 경험과 관광객들의 수요충족을 위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데 있다. 또한, 마을기업의 운영으로 직접적인 고용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의 민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지역주민의 직접적 소득원과 결부되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우호적이다.

4) 함양군 물레방아떡마을

함양 물레방아떡마을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안심마을에 위치해 있다. 1700년대 안의현감 이던 박지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물레방아를 안심

마을에 세웠다. 안심마을에서는 ‘물레방아’라는 지역 마스코트를 이용하여 현재 ‘함양 물레방아떡마을’이라는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고 마을 위원장의 창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2012~2013년에는 마을기업으로서 약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2014년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체험·소득 부문 은상을 수상하여 창조마을 만들기 지원금으로 약 5억 원을 받았다. 지원금은 주변의 조경 관리 및 시설 유지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추후 물레방앗간을 체험관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일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마을기업에는 한명의 사무장이 상주하면서 부녀회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모두 마을주민들이다.

함양 물레방아떡마을에서는 떡 만들기 체험활동이 마을기업 이윤의 주가 된다. 마을기업의 체험활동은 마을 자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과 산촌유학교육원(미주필요)에서 주관하는 ‘전통음식 체험’이다. 마을 자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청소년 단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 3회 실시되고 있다. 물레방아떡마을 홈페이지(<http://ansim.go2vil.org/>)에서 체험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일 때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가비 1만원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떡 만들기 체험 뿐 아니라 전통놀이, 시골방송, 농사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촌유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전통음식 체험 - 떡 만들기’는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실시된다. 체험활동 대상은 주로 초·중등학생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마을 자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과는 달리 이곳 교육원에서는 떡 만들기가 ‘전통음식 체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약 3시간에 걸쳐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을기업은 앞으로도 체험활동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2016년도에는 물레방앗간 체험장 복원 작업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 안심 물레방아 체험장은 2005년 함양군에서 설비 노화로 인해 복원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기계들이 위험해 체험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좀 더 보완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장 주변 조경 또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물레방아떡마을은 매년 8월 여주축제⁷⁾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5회째를 맞는 여주축제는 건강식품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농촌체험축제의 일종으로, 농촌에는 활력과 소득증대를, 도시민에게는 건강과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이다. 현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여주터널을 만드는 공사가 2/3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함양군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의사 등의 전문가와 도시민 단체, 부녀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건강·힐링과 관련된 식품을 준비하고 홍보하고 있다.

물레방아떡마을은 체험활동 이외의 제품의 대규모 상업적 생산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마을 내에서 쌀과 콩, 여주 등을 재배하여 메주, 두부, 떡, 막걸리 등의 지역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부수적인 절차적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심마을 솔숲 주변에서 안심마을부녀회의 주도로 여주 피클, 여주 불고기, 여주 막걸리 등을 소규모로 시식·판매하며, 농산물 판매장에서도 여주, 양파·감자 등의 농산물과 떡, 산약초 엑기스, 산삼주 등 다양한 함양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함양 물레방아떡마을은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해 만든 마을기업이다.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초기의 지원금 뿐 아니라 지속적인 콘테스트 입상과 기업 변화로 많은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기업화를 위한 마을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보다는 마을의 위원장의 창고에서부터 시작해 현재에 도달하기까지 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워왔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갔기에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마을기업에 비해 숙박이나 생산품의 판매로 얻는 수익이 낮은 편이며, 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 비교적 젊은 몇몇 주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시설의 건립이나 개보수에 투입이 되고 있고, 만들어진 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

지 않는 유희체험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떡이라는 고정적인 체험활동만이 존재하여 관광객의 재방문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숙박시설과의 연계, 다양한 생산품 판매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

5) 거창군 오미자 영농조합

오미자 영농조합은 2007년 거창군 가북면 우혜마을에 있는 오미자 농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거창 오미자 영농조합은 거창군 내 위치한 오미자 생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오미자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거창군은 2007년에 오미자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오미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오미자는 생과형태가 아닌 가공과정을 거쳐 제품화하여 판매되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오미자 상품의 종류는 생 오미자, 당절임, 건 오미자, 오미자 액기스가 있다. 거창 오미자 영농조합의 가공공장은 유기농클린벨트사업⁸⁾의 지원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사 비수기에는 젊은 농가들을 차출해서 가공공장 노동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이미지에 걸맞게 지역 농민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3년 동안 지원되면서 마을기업 영농조합 건물을 세웠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식재사업을 개인 농가들이 전액 부담하는 형식이었으나 지원 이후 식재사업의 50% 정도만 부담하게 되어 농가의 부담이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덕분에 가북면 전체 오미자 재배면적을 300ha 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각 농가에서 재배한 오미자는 영농조합에서 소유한 공장을 통해 가공하여 개별·공동 판매되며, 2015년 기준으로 오미자 영농조합은 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오미자 영농조합은 2013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가북면 오미자 농가들의 자발적 주도로 오미자 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오미자생산품을 판매하고, 오미자뿐만 아

니라 거창의 다양한 생산품도 전시, 판매하여 경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오미자 절임체험, 오미자 시음과 가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준비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미자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가북면 고랭지 오미자는 차별화된 맛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오미자 판매 제품을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인터넷주문, 쇼핑몰, 개인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영농 조합 법인에서 각 농가 생산물의 일부를 공동 매입하여 마트에 판매 대행해주는 형식으로 판매범위가 확대되었다. 생산은 각 농가가 독립적으로 생산하며 판매는 농가 총 생산량 중 일부는 각 농가의 판매 전략에 따른 개인 판매를 하고, 나머지 생산량은 조합과의 가격 절충과정을 거쳐 조합이 농가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마트에 납품하는 판매대행 방식으로 공동 판매를 한다.

2013년도에 제1회 거창오미자축제를 시작하여 거창오미자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축제의 비용은 지원금이 아닌 가북면 농가들의 자발적인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미자를 활용한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경상대학교 농과대학과 협력하여 오미자 와인을 개발 중이다. 또한 마을기업과는 별개로, 지역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경상남도청에 캐릭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 선정되어 블로그를 이용한 체험단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2015년 이전에는 전화·인터넷주문 방식으로 판매를 해왔고, 이후부터는 오미자영농조합법인이 농가로부터 오미자를 매입하여 농협(하나로 마트)과 같은 판매처에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판매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오미자 축제’를 개최하여 오미자를 홍보·판매함으로써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거창의 오미자 영농조합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오미자 영농조합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3년 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합건물 신축과 오미자 재배농가에 지원금 제공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였고, 안정적으로 마을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였다. 정부는 3년의 지원

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마을기업에 정기적으로 판매 상황이나 영업실적 보고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거창 오미자 영농조합은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존립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고 캐릭터 사업을 통한 마케팅 홍보 등의 자립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6) 합천군 양떡메마을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위치한 하남 양떡메마을은 총 50가구, 158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중 4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남 양떡메라는 이름은 '양과즙, 가래떡, 메주'의 줄임말로 마을체험 프로그램과 특산품을 판매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2010년 합천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하남 양떡메마을은 직접 댕돌을 돌려 만드는 손두부 만들기 체험, 메주 만들기 체험, 인절미를 만들기 위한 떡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과즙과 배즙, 찹쌀, 청국장, 건고추, 가래떡, 표고버섯 슬라이스 등의 특산물이 2010년부터 평균적으로 3억 원 이상 판매되고 있고, 2014년에는 3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합천의 다른 특산물들이 많음에도 양과와 쌀, 콩이 사업의 중심 아이템이 된 이유는 지역 내에서 원재료를 구하기 쉽고, 가공을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양떡메마을사업은 당시 마을이장을 맡았던 성영수 위원장의 추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성영수 위원장은 2006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양과즙, 떡가래, 메주 가공설비를 설치하여 가공,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정보화 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 주민 컴퓨터 보급, 정보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전화 주문 위주였던 판매양식도 마을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 인터넷 주문이 크게 증가하였고 마을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후 2010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에 지원·선정되어 그동안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양떡메 판매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1차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가공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양과의 경우 즙으로 가공한 후 직거래를 할 경우 부가가치가 약 4.5배 증가했고 떡가래, 메주도 각각 약 1.5배, 2배 이상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거뒀다.

양떡메마을은 합천군 지역에서 생산된 양과, 쌀, 콩을 직접 구매하여 가공·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급과정의 초기에는 원재료를 논·밭에 심고 직접 재배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져 원재료를 지역 농가에서 직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과와 메주는 전량 수매하고 쌀의 경우 정부수매 이후 남은 것 중 원하는 양만큼을 시중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다.

가공작업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작업에서 반자동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판매 전략은 초기에는 상품 한 박스를 팔면 소개해준 사람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박람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재 약 1만명 정도의 고객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유통에서는 판매 수익의 대부분은 직거래 형태이고 이외에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일부는 쿠팡 등에 납품하고 있다.

양떡메마을사업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아 주민들에게 소득이 고루 돌아가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소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마을기업 인근에 급식소를 만들어 주 5일 공동무상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급식소는 하남마을이 2006년 장수마을로 선정되면서 나온 지원금으로 만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2009년 처음 무상급식이 도입되었을 때는 매주 화요일 주 1회 식사를 제공하였고,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며 급식을 준비하였다. 2년 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연간 2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조리사를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주 5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점심만 제공하고 있지만 후에는 저녁까지 합하여 총 주 10회의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매년 1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합천군 교육발전위

원회에 기부하고 있고, 매 음력 설 전엔 경로당 20곳에 100만원 상당의 떡을 돌렸다. 지난해에는 합천군 500여개 경로당에 1,200만원 상당의 떡을 기부하였고, 매년 합천군에 저소득층을 위한 떡 600kg을 돌리고 2016년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 약 100만원을 기부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마을 공동체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수익금을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 마을 환원에 많이 쓰이고 사업 준비금으로 어느 정도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양떡메마을은 양과즙, 떡가래, 메주의 모든 원료와 노동력을 마을 내에서 충당하고 있다. 양떡메마을 공장의 노동력은 모두 마을 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수기에는 평균연령이 높은 마을 특성상 마을 내에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합천읍 내에서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다. 상품 판매전략은 초기에는 마을주민의 소개로 판매될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소문전략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전화 판매와 인터넷판매가 주 판매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판매전략이 도심지와 떨어져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입지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또 원재료공급은 모두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재료를 평균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다. 상품성 없는 숫양과도 매입하여 양과즙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 비옥한 토지를 이용한 2모작을 통해 벼, 콩, 마늘, 양파 등이 많이 생산될 수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2모작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논에서 2모작으로 재배되는 양파는 밭에서 재배되는 양파보다 저장성이 뛰어나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양떡메마을의 지분형태는 100%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양떡메마을 법인주주는 주민 42명이다. 또 이 마을기업의 목적은 “다 같이 잘 살자.”로 수익을 마을주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공성을 잘 갖추고 있다. 합천 양떡메마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작물로 상품화를 하였고 때문에 원자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원자재를 구하는 과정과 마

을주민이 직접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마을주민에게도 소득이 생기는 효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주민의 평균연령이 높아져 기계화율을 높이는 추세이다. 양떡메마을에 귀농, 귀촌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지역연계성 검토

이상의 6개의 마을기업 운영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각 마을기업의 사업목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경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각 마을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마을기업의 설립은 한구자리 채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혹은 영농조합에서 담당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6개의 기업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금의 사용을 시설의 확충이나 유지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먼저, 민들레 공동체와 한구자리 채울의 경우 정부지원 종료 후 마을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기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낮은 마을기업이다. 민들레 공동체의 경우 우리밀 빵 판매 및 제빵 실습체험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제빵사의 사직으로 2015년부터 마을기업의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구자리 채울의 경우 하동군의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운영을 통해 다문화여성의 취업일자리 확보 및 한국문화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행자부의 재정지원 사업 종료 이후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적 목적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다.

이 두 마을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충족되지 않아 마을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마을기업의 기반이 마을에 기초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을기업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제빵이나 식당업의 경우, 다른 일반 사업체와도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기반한 마을기업 고유의 경쟁력이 없

표 2. 사례연구 기업 비교

구 분	민들레 공동체	한구자리 채울	두모 마을기업 해양레저	물레방아떡마을	거창 오미자영농조합	양떡메마을	
사업 목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역 내 고용의 활성화 및 소 외계층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경제 활성 화	
주요 사업 내용	우리밀 빵 판매 및 제빵실습	향토음식 판매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오미자 생산/ 가공/판매	양파즙, 떡가래, 매주 생산/가공 /판매	
사업 분야	제조/체험	식품 판매	체험	체험	제조	제조/체험	
추진 주체	마을공동체	여성지도사회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영농조합	영농조합	
지원금 사용처	시설 건설비	시설 임대료 및 인건비	체험활동을 위 한 장비구입	시설 유지비 및 조경비용	생산설비 및 생 산물품 구입	기계화 설비 구매	
사업 성 과	수익 성	현재 마을기업 활동 중단으로 수입 無	식품 판매로 인한 수익성이 높지 않음	체험활동, 민박 및 숙박을 통 해 수익을 창 출하며 매출이 높음	체험활동을 통 해서 기업의 수익창출	가공된 오미자 식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하며 매출이 높음	마을의 특산품 의 판매를 통 해 수익을 창 출하며 매출이 높음
	지역 성	중요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의 고유성에 기반하지는 않 음	특정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음	두모마을 지역 공동체에 기반 하며 기업의 수 익금은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됨	마을 내 부녀회 의 주도로 농 산물 직판장, 체 험활동을 진행 하며, 여주축체 를 공동체 내 에서 개최하며, 수익금은 마을 에 환원	오미자 재배농 가 간 오미자 공동 가공 및 축체 개최	마을 내 무료 급식소 운영, 수 익금 대부분을 마을의 시설이 나 복지에 환원
	사회 적 공익 성	無	다문화 여성의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대상 무상 체험활동 제공 및 장학 금 제공	지역주민의 일 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지역주민의 일 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무료급식소 운 영, 교육발전기 금 기부, 경로 당 떡 기증 등

자료: 필자 작성

다면, 수익성을 창출하기 어렵다. 민들레 마을의 경우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사회적 측면의 활동내역이 전무한 실정이며, 한구자리 채울의 경우 다문화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에 따라 현재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다. 민들레공동체와 한구자리 채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지역성, 사회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연계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고유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고유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모마을기업과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으로,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의 경우 해안의 자연적 요건을 활용하여 해양레저 및 숙박업을 통해서 마을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과 공동체에 환원하고 있다.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물레방아라는 마을의 문화유산과 떡이라는 식품을 결합시켜 체험활동 위주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마을기업 모두 체험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을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의 경우는 자연유산을 중

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한국 최초의 물레방아라는 문화적 유산을 중심으로 떡방아 체험이라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두모마을과는 다르게 체험과 숙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지역성의 측면에서 두 마을기업의 지역주민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두모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숙박 및 레저체험을 운영에 참여하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물레방아떡마을은 마을 내 부녀회의 주도로 농산물 직판장, 체험활동, 여주축제를 공동체 내에서 개최하며, 수익금은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두모마을기업과 물레방아떡마을은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활동 무상지원과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동체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익금을 투자하고 있다. 두모마을기업과 물레방아떡마을의 경우 지역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 내 존재하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창출하여 마을기업의 존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거창 오미자 영농조합과 양떡메마을의 경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거창 오미자 영농조합의 경우 마을기업이 설립 됨에 따라서 협동조합 내 오미자의 가공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규모경제의 달성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협동조합 단위의 오미자 판매처의 확보 역시 용이하게 되었다. 양떡메마을의 경우 마을 내 존재하던 양과와 쌀, 콩 등의 농산물은 양과즙, 떡, 메주로 가공, 판매하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떡메마을은 기존에 소규모로 생산 판매하던 지역특산물을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자동화함에 따라서 생산량과 수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지역성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정도를 살펴

보면 거창오미자 영농조합은 매년 오미자 축제를 지역공동체에서 계획하고 개최하고 있었으며, 축제를 통한 수익금을 지역 내에 재투자하고 있다. 양떡메 마을의 경우 마을의 노년층을 위해 마을 내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 대부분을 마을의 시설이나 복지에 환원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오미자영농조합은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떡메마을은 교육발전 기금기부, 경로당 및 양로원 등에 떡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두 마을기업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마을 기업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함에 따라서 생산량 및 판매량의 증대를 이루어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으며, 창출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마을기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단이며,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연자원·문화자원·지역의 특산물 등과 지역 내 유희 노동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었다. 마을기업이 존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창출이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활동의 증대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마을기업의 경우 정책지원으로 인한 지원금 대부분을 시설의 건설이나 유지에 사용하고 있어 재정활동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 컨설팅이나 자문, 교육과 같은 사후관리감독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시설투자의 경우 매몰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의 자금운용이 경직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관리감독 및 운영 지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마을기업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마을기업의 존립기반과 자생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

다. 민들레공동체와 한구자리 채울의 경우 지역의 연계가 미약하고, 컨설팅이나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마을기업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신청조건이 어렵지 않아 무분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점과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을 증대시키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마을기업의 신청은 24시간의 사전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가능하다. 마을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낮다. 낮은 진입장벽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초기에 마을기업의 양적인 증대를 이끌어 왔으나, 재정지원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별 마을기업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재정은 오히려 마을기업의 자립성 확보를 어렵게 하며, 정부 재정지원의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을기업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기업운영을 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역자원의 개발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할 것이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마을기업의 사업성을 검증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위주에서 인력 교육, 사업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마을기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시설설비 투자 혹은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다. 시설설비투자의 경우 매몰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재정의 유동성이나 재생산이 어렵다. 이러한 시설의 투자보다는 인력교육이나 사업컨설팅 위주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마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노동효율성 강화, 노동재생산이 가능하게 되

어 마을기업의 자생적 존립기반형성이 가능하다.

셋째,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기관의 선정 혹은 지역 내 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 지원은 대부분 신설업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만들어내어 수익성을 창출하고, 실제적 자생적 존립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 대부분은 컨설팅이나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업무범위를 넓히거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의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거창오미자 영농조합의 사례와 같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이나, 마을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사회적기업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사업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신청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3년간 지정이 되며, 수익구조나 자생력 등을 갖추었을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 2)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 사회 활성화가 목적이다.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우수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출자금이 총 1억원 이상이 되어야하며, 설립 후 운영식적이 1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농림수산식품부, 2016).
- 3) 마을기업의 유형 분류는 이종호(2013)의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 기반형, 문화컨텐츠 기반형, 사회서비스 기반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자원 기반형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들을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소득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하며, 문화컨텐츠 기반형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 사회서비스 기반형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유형에 해당하며, 복합형은 위 3가지 유형 중 2가지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4)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민들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생산단체를 말한다(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자활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http://www.jahwal.or.kr/>).
 - 6)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림수산물부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한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농림수산물부, 2011).
 - 7) 여주란 열대아시아 원산의 덩굴성 한해살이풀을 말한다. 민가 주변에서 관상용을 주로 심으며, 열매는 식용, 종자는 약용으로 이용한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7973&cid=46686&categoryId=46694>).
 - 8) 유기농클린벨트사업은 농청진흥청이 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자원 보호와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이다. 유기농클린벨트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원금을 받으며 농작물의 유기농 재배를 위한 기술지원을 받게된다(농촌진흥청, 2016).

문헌

- 이상면, 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지역개발연구, 47(2), 87-119.
- 이원호, 2014,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기반 지역경쟁력 개념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한과제 -지리적 분석을 위한 시론적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8(2), 245-255.
- 이중호, 2013,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경남 진주시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54-667.
- 장원봉, 2015,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국토(구 국토정보), 409, 5-11.
- Amin, A.(ed.), 2009, *The Social Economy: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about Capitalism and Welfare*, London: Zed Books.
- Buckingham, H., Pinch, S. & Sunley, P., 2010, The regional geograph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 review of recent surveys, Working Paper 35, TSRC.
- DTI, 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nited Kingdom.
- 경상남도, 2016,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2월 1일 개정(<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20%EC%9C%A1%EC%84%B1%EB%B2%95>).
- 국가법령정보센터/농어촌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 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78#0000>).
- 네이버지식백과/여주, 2016년 6월(<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7973&cid=46686&categoryId=46694>).
- 농림수산물부, 2011, 녹색농촌체험마을 시행지침.
- 농림수산물부, 2016,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시행지침.
- 농촌진흥청, 2016,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사업 시행지침.
- 안전행정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 주요정책현안,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년 6월,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행정자치부,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사), 2016년 6월, <http://www.jahwal.or.kr>.
- 교신 : 이중호,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jhl@gnu.ac.kr, 전화: 055-772-2185)
- Correspondence : Jong-Ho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Korea(email: jhl@gnu.ac.kr, phone: +82-55-772-2185)

(접수: 2016.07.15, 수정: 2016.08.01, 채택: 2016.08.25)